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LOGISTICS REPORT

34주차 글로벌 물류 현황

보고기간 08/17~08/23 · 작성 2026-08-23

경영기획팀 · 임원회의 보고

2026-W34

Executive Summary

주제	결론(신호 등)	핵심 근거
종합 상황	●	해상·무역 리스크 확대 속 항공은 지역별 혼조세, 종합 관망 국면 진입
해상	●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으로 미주서안·동안 운임 급등, 유럽은 6주 연속 하락하며 지역별 양극화 심화(출처: freight_indices, The Loadstar)
항공	●	아시아태평양·유럽 수요 견조하나 중동 CTK -18.2%로 급감, 글로벌 적재율 46%로 소폭 개선(출처: iata-cargo)
물류	●	미국 트럭 톤수 7월 1% 감소, 복합운송 성장세 둔화로 내수 물류 수요 약화 조짐(출처: DC Velocity)
무역	●	미국의 캐나다산 수입품 50% 관세 발효로 북미 교역 리스크 확대, 파나마 운하 통항량 축소로 공급망 압박 가중(출처: Supply Chain Dive)

* 신호등은 리스크 수준(● 안정 / ● 관망 / ● 주의)이며 가격 등락색과 무관.

1. 주간 글로벌 시황 정리

결론: 해상·무역 리스크 확대 속 항공은 지역별 혼조세, 종합 관망 국면 진입 (🟡).

핵심 이벤트

1.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에 따른 미주 항로 운임 급등
2. 미국·캐나다 관세 분쟁 격화
3. 아시아태평양 항공 수요 견조
4. 중동 항공 물동량 급감
5. 미 내수 트럭·복합운송 성장 둔화

종합 해설

- **배경:** 8월 셋째 주 글로벌 물류 시장은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과 미국의 대캐나다 관세 발효가 동시에 부각되며 해상·무역 부문 변동성이 확대(출처: Splash247, Supply Chain Dive). 항공은 지역별 수요 격차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글로벌 적재율은 소폭 개선(출처: iata-cargo).
- **분석:** 해상은 미주 항로 운임이 두 자릿수 급등한 반면 유럽 항로는 6주 연속 하락하며 항로별 디커플링 심화(출처: freight_indices, The Loadstar). 항공은 아시아태평양·유럽이 견조한 수요를 보이는 반면 중동은 CTK -18.2%로 큰 폭 위축(출처: iata-cargo). 무역 부문은 관세 발효로 복미 공급망 재편 압력이 가중되는 모습(출처: Supply Chain Dive).
- **시사점:** 단기적으로 미주 항로 운임 강세 지속 가능성에 대비한 선박 확보 전략 필요,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 장기화 여부 모니터링 강화, 대캐나다 관세 여파에 따른 대체 조달처 검토 요구.

2. 해상

결론: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발 미주 항로 운임 급등, 유럽 항로는 하락세 지속으로 항로별 양극화 심화 (🔴).

INDEX

지수	최신값	기준일	전주 대비
SCFI 종합	3409.63pt	08/17	▲ +1.6%
SCFI 미주서안	6714pt	08/10	▲ +21.3%
SCFI 미주동안	9568pt	08/10	▲ +19.0%
SCFI 유럽	2945pt	08/10	▼ -6.7%
KCCI 종합	4393pt	08/17	▲ +2.4%
CCFI 종합	1821.65pt	08/17	▼ -1.4%
WCI 종합	4526달러/FEU	08/17	▲ +4.3%
BDI	2978pt	08/10	▲ +10.1%

출처: freight_indices(SCFI·KCCI·CCFI·WCI·BDI).

이슈

- **배경:** 엘니뇨발 가뭄 여파로 파나마 운하 일일 통과 척수가 축소되며 컨테이너·가스선 운임에 압박 발생(출처: Splash247, Supply Chain Dive). MSC는 홍해 수에즈 운하 통항을 재개하며 최소 7차례 운항 계획 발표(출처: Linerlytica).
- **분석:** SCFI 미주서안 +21.3%, 미주동안 +19.0%로 급등한 반면 SCFI 유럽은 -6.7%로 6주째 하락(출처: freight_indices, The Loadstar). SCFI 종합은 +1.6%, KCCI 종합 +2.4%로 소폭 상승했으나 CCFI는 -1.4%로 혼조, WCI 종합은 4526달러/FEU로 +4.3% 상승(출처: freight_indices). BDI도 +10.1% 상승하며 건화물 시장 동반 강세.
- **시사점:** 미주 항로 선복 부족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부킹 확대 필요, 유럽 항로는 약세 지속 시 운임 협상력 확보 기회로 활용,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 추이 지속 모니터링 필요.

주요 뉴스

해상

MSC 홍해 통항 재개...수에즈 복귀 최소 7차례 운항

MSC, 수에즈/홍해 통항 재개



MSC가 자사 선대를 투입해 홍해 통항을 재개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2주간 밥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한 동향이 최소 7차례 확인되면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수에즈 운하 복귀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Linerlytica에 따르면 MSC는 2026년 8월부터 자사 선박으로 홍해 통항을 다시 시작했다. 유럽·지중해발 중국행 여러 노선에서 최소 7회의 동향 운항이 이뤄졌으며, 대표적으로 2만3782TEU급 MSC AMELIA호가 지중해~중국 TIGER 서비스에 투입돼 남향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MSC는 아직 수에즈 운하 서비스 재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Linerlytica는 이번 통항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정기 배선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향후 2주 안에 신원 노출을 최소화하는 다크 통항 방식의 홍해 횡단이 추가로 계획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해 항로는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 위협이 고조되면서 주요 선사들이 대거 이탈했다. 이후 희망봉 우회가 일반화되며 아시아~유럽 노선의 운항 거리와 기간이 크게 늘었고, 이는 운임 상승과 선박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MSC의 통항 재개는 선사들이 리스크 관리와 운항 효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업계에서는 아직 MSC 외 선사들의 수에즈 복귀 계획이 공식화되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노선 전환보다는 단계적인 검증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통항 안전성 확보 여부와 보험료 변동 폭이 향후 참여 선사 확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MSC의 이번 행보는 아시아~유럽 항로의 운임 안정화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다. 다만 후티군의 공격 위협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크 통항이라는 우회적 방식을 택한 점은 통항 재개가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Linerlytica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에 미서안 운임 9% ↑...유럽은 6주째 하락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으로 아시아발 미국 서안(USWC) 노선 운임이 급등했다. 선사들은 운하 통과를 피해 미서안 항만으로 화물을 우회시키고 있다.



아시아발 미국 서안 노선 현물 운임이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 여파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아시아-북유럽 노선은 6주 연속 하락하며 노선별 희비가 엇갈렸다.

Drewry의 세계 컨테이너 지수(WCI)에 따르면 상하이-로스앤젤레스와 상하이-뉴욕 스팟 운임은 주간 대비 각각 9% 오른 40피트당 6802달러와 9507달러로 집계됐다. 로스앤젤레스 노선은 전주 6% 상승에서 오름폭을 키웠고, 뉴욕 노선은 전주 대비 1%포인트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Drewry는 태평양 횡단 무역이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는 가운데 선사들이 임시 결항과 선박 감축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회사의 컨테이너 선박 통계에 따르면 다음 주 7건의 임시 결항이 예정돼 있으며, 8월 선박량은 아시아-미국 동안에서 전월 대비 9%, 서안에서 0.4% 각각 감소했다. Drewry는 선박 축소 영향으로 다음 주 운임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Freightos의 발틱 지수도 아시아-미서안 노선에서 9% 오른 40피트당 7422달러를 기록하며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미국 동안 노선은 상승률이 3%로 둔화되며 9422달러에 그쳤다. Linerlytica는 파나마 운하 당국(ACP)의 추가 통항 제한 조치로 아시아-미동안 스팟 운임이 40피트당 1만10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ACP는 오는 9월 3일부터 네오파나막스 갑문의 일일 통항 슬롯을 9개로, 파나막스 갑문은 25개로 줄이고 9월 15일에는 23개로 추가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상시 일평균 34개에서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ACP는 우기 진입과 절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역 여건이 통항 운영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럽 노선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WCI 기준 상하이-로테르담 운임은 전주 대비 1% 하락한 40피트당 4401달러, 상하이-제노바는 2% 내린 4955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Linerlytica에 따르면 유럽 노선은 6주 연속 주간 하락했으며,...

출처: The Loadstar

파나마 운하 통항량 32척 축소...컨·가스 운임 압박

파나마 운하, 일일 통항량 축소



파나마 운하가 오는 9월 중순부터 일일 통항 예약 물량을 32척으로 줄인다. 엘니뇨로 인한 강수량 부족이 이어지면서 운하 당국이 선박 흘수 제한에 이어 통항 슬롯 자체를 추가로 축소하는 고강도 방어 조치에 나섰다.

Splash247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청은 9월 4일 이후 예약분부터 하루 네오파나막스 9척, 파나마스 25척 등 총 34척을 배정하고, 9월 15일부터는 파나마스 물량을 23척으로 줄여 일일 통항량을 32척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7월 이미 일일 예약 물량을 36척에서 34척으로 축소한 데 이은 추가 감축이다.

클락슨증권의 프루데 모르케달과 오마르 노크타 애널리스트는 운하 통항 제한이 실질 선박 공급을 조이면서 조만간 운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 걸프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초대형가스선(VLGC)과 건화물선이 파나마 운하 의존도가 높아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클락슨스는 VLGC 일일 용선료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2026년 추정치는 하루 8만1250달러로 기존 대비 1만5000달러 높였고, 2027년 전망치는 7만달러로 2만달러 올려 잡았다.

운하청은 우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강수량과 유역 유입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경매 제도도 개편해 LNG·LPG선, 벌크선, 컨테이너선·차량운반선, 탱커를 네 그룹으로 나눠 선별 경매를 진행하고, 네오파나막스 슬롯 경쟁에서는 TEU 기준 대형 컨테이너선에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흘수 제한은 일부 완화됐다. 당초 48피트로 낮추려던 계획은 9월 2일로, 이후 47.5피트 전환은 10월 1일로 각각 연기됐다. 한편 이달 초 운하 슬롯 일일 경매 낙찰가는 평균 약 110만달러에 달했으며, 네오파나막스 일부 입찰가는 수백만달러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2023~2024년 가뭄 당시 파나마 운하 처리량이 정상 대비 40%까지 급감했던 전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미주 동안~아시아 노선의 우회...

출처: Splash247

3. 항공

결론: 아시아태평양·유럽 수요 견조 지속, 중동은 급격한 위축세로 지역별 명암 교차 (🟡).

INDEX

권역	수요 CTK(YoY)	공급 ACTK(YoY)
전체(글로벌)	+4%	-0.4%
아시아태평양	+10.5%	+5.3%
유럽	+6%	+3%
북미	+5%	+1.2%
중동	-18.2%	-22.9%
남미·카리브	-2.8%	+1.2%
아프리카	+7.7%	-9.4%

출처: IATA Air Cargo Market Analysis(iata-cargo, asOf 2026-05). 글로벌 적재율(CLF) 46%(+1.9%p).

이슈

- **배경:** IATA 통계 기준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CTK)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반면 공급(ACTK)은 -0.4% 감소하며 적재율 개선(출처: iata-cargo).
- **분석:** 아시아태평양 CTK +10.5%, 유럽 +6%, 북미 +5%로 주요 권역 성장세 유지, 반면 중동은 CTK -18.2%, ACTK -22.9%로 큰 폭 위축(출처: iata-cargo). 아프리카는 수요 +7.7% 대비 공급 -9.4%로 공급 부족 심화. 글로벌 적재율은 46%로 전년 대비 +1.9%포인트 상승. 다만 개별 매체 보도에서는 글로벌 물동량 9% 급감, 운임 2% 상승 소식도 병존하여 단기 변동성 확인(출처: Air Freight News).
- **시사점:** 중동 노선 공급 축소에 따른 대체 루트 확보 검토 필요, 아시아태평양·유럽 수요 강세에 맞춘 탄력적 공급 배분 전략 요구.

주요 뉴스

항공

DHL 화물기 라이프치히 이륙 중 미상 물체와 충돌

DHL 화물기,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드론과 충돌 사고



DHL 화물기가 독일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을 이륙하던 중 미상 물체와 충돌해 하노버에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 당국은 활주로 인근에서 기폭 장치가 담긴 드론을 발견하고 폭발물 전문가를 투입해 정밀 조사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은 사건 관계자를 인용해 DHL 소속 화물기가 지난밤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 상승 중 미확인 물체에 부딪힌 뒤 하노버로 회항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대변인은 드론이 발견된 남쪽 활주로를 폐쇄한 채 폭발물 전문가들의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객기를 포함한 여러 항공기가 인근 공항으로 회항했으나 이날 오전부터는 정상 운항이 재개됐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화요일 자정 직전 우크라이나 Antonov 화물기 인근에서 폭발 장치를 장착한 드론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드론 내부에서 기폭 장치가 확인됐지만 작동 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빌트는 해당 폭발물이 비료와 휘발유로 간단히 제조할 수 있는 유형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은 DHL과 우크라이나 Antonov Airlines의 핵심 거점이다. Antonov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2022년부터 이 공항을 운영 기지로 사용해 왔다. 항공 교통이 우회되는 동안 한 화물기는 착륙을 중단하고 선회했으며, 이후 미상 물체와 충돌해 하노버에 착륙한 뒤 기수 부분에서 경미한 손상이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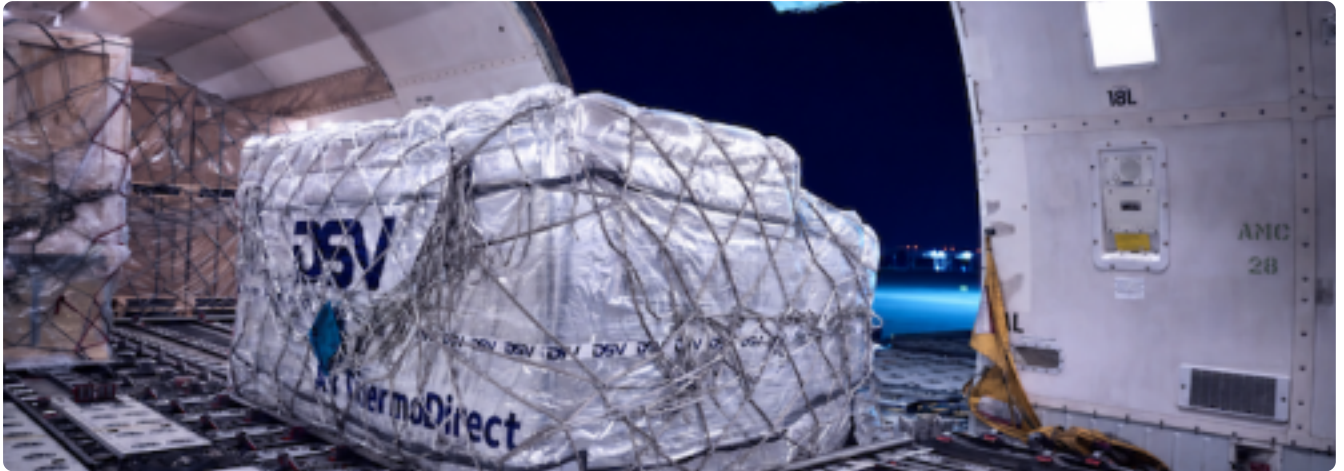
독일 내무부 대변인은 라이프치히 할레 공항에서 드론이 발견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추가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2024년 소포 발화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럽 보안 당국은 지난해 소포에 은닉된 소이 장치가 잇따라 발화한 사건과 관련해 항공 화물 운영사에 대한 사보타주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독일 공항들은 군사 시설, 에너지 터미널, 항만, 물류 기업 등을 겨냥한 무단 드론 비행이 잇따르면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독일 연방 경찰은 이러한 드론 비행이 러시아 요원에 의해 조직됐을...

출처: Air Freight News

DSV, 룩셈부르크~인디애나폴리스 의약품 항공 직항 개설

DSV, 룩셈부르크-인디애나폴리스 직항 의약품 항공노선 개설



DSV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의약품 전용 항공 직항 노선을 개설하며 글로벌 콜드체인 연결성을 강화했다. 룩셈부르크와 인디애나폴리스를 잇는 이번 노선은 기존 에어 서모다이렉트 서비스의 확장판으로, 무제어 환경 노출 시간을 줄이고 능동형 컨테이너 운용의 복잡성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DSV는 이번 직항 연결을 통해 제약사들이 제품 무결성을 보호하면서 총비용과 탄소 배출, 운용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디애나폴리스는 미국 내 생명과학·헬스케어 물류 성장세가 빠른 지역 중 한 곳으로, 이번 노선은 글로벌 제약 공급망의 핵심 축 두 곳을 직접 묶는 구도다.

케네스 셀스트림 DSV 헬스케어 글로벌 총괄 부사장은 “인디애나폴리스 운영 시설은 미국·유럽·아메리카·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약 생산 지역 전반에 걸쳐 엔드투엔드 가시성과 통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치료제가 더 빠르고 신뢰성 있게 이동해 환자 결과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선은 DSV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항공 화물 네트워크에 통합된다. DSV는 최근 의약품 물류에서 단순한 운송 능력 확보를 넘어 일관된 온도 유지와 통제, 화물의 처음부터 끝까지 소유권을 갖는 구조를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스테파니 페나레테 DSV 미주 항공 제품 담당 부사장은 “인디 왕스는 공급망의 핵심 지점들을 완전한 책임 아래 두려는 전략을 반영한다”며 “핵심 제약 허브 간 연결 정밀도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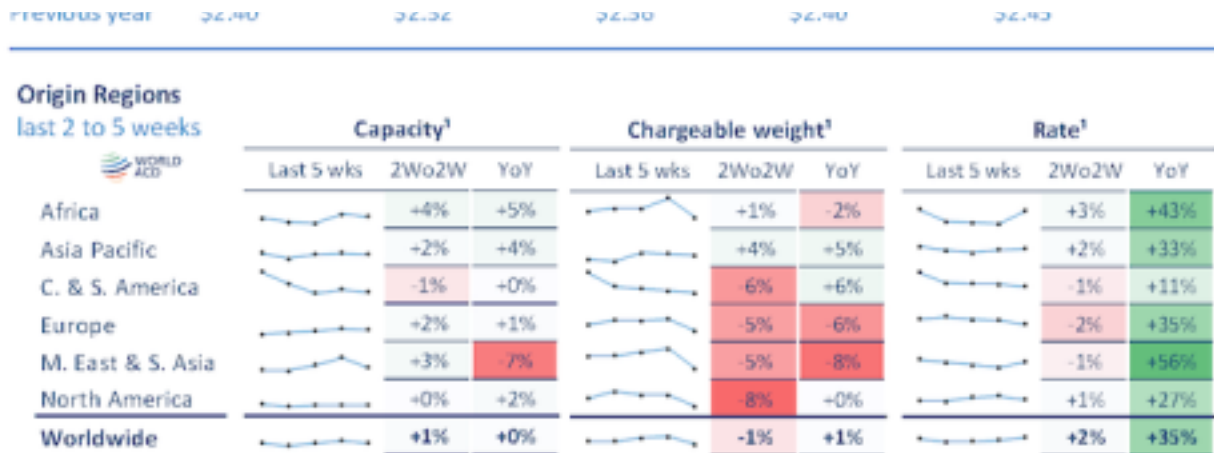
업계에서는 이번 직항 개설이 제약 화물의 온도 편차 리스크를 줄이고 리드타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의약품의 경우 환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 이탈이 품질 문제로 직결될 수 있어 직항 노선의 가치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DSV가 인디애나폴리스발 의약품 항공 화물의 물동량을 끌어안으며 북미 헬스케어 물류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계기가 될지...

출처: Air Freight News

글로벌 항공화물 물동량 9% 급감...운임은 2% 올라

WorldACD 주간 항공화물 동향 (22주차) - 2026



22주차(5월 25~31일) 글로벌 항공화물 유상중량 기준 물동량이 직전 주 대비 9% 감소했다. 성탄절, 미국 메모리얼데이, 이드 알 아드하 연휴가 겹친 영향이다. 반면 평균 운임은 같은 기간 2% 상승했고, 공급석은 1% 줄었다고 WorldACD 주간 집계가 밝혔다.

지역별 물동량은 전 지역에서 뒷걸음질 쳤다. 아시아태평양과 중남미가 각각 3% 줄어 상대적으로 선방한 가운데, 아프리카(-20%)와 중동·남아시아(-21%)발 화물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이드 알 아드하 연휴가 4일간 이어진 것이 중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기점 물동량 급감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노선별로는 중동·남아시아발 유럽행 유상중량이 17% 줄었다. 두바이발(-25%)과 방글라데시발(-45%) 화물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인도발은 4% 감소에 그쳤다. 역방향인 유럽발 중동·남아시아행도 22%, 유럽발 아프리카행은 17% 각각 감소하며 연휴 영향이 양방향으로 나타났다.

아시아태평양발 유럽행과 미국행 물동량은 직전 주 대비 각각 2%, 1% 줄었다. 유럽행은 중국·베트남·태국발만 1~4% 늘었고, 미국행은 홍콩·한국·태국·인도네시아발이 2~4% 증가한 반면 중국발은 보합세를 보였다. 한국발 미국행 화물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평균 항공운임은 킬로그램당 3.29달러로 직전 주 대비 2% 올랐다. 아프리카발이 9%, 중동·남아시아발이 4%, 아시아태평양발이 1% 각각 상승하며 미주와 유럽발의 한 자릿수 초반 하락을 상쇄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 높은 수준이다.

월간 기준으로도 운임 상승 흐름은 이어졌다. 5월 전체 평균 운임은 4월보다 1%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태평양발(+4%)과 아프리카발(+6%)이 상승을 견인했다. 중동·남아시아발은 7% 내렸다. 연간 누계 기준 글로벌 톤수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중동발 운임 급등세가 전체 시장의 연초 이후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주요 연휴가 겹치며...

출처: Air Freight News

4. 물류 사업 전반

결론: 미국 내수 운송 수요 둔화 조짐, 탄소중립·자동화 등 구조적 전환 병행 (🟡).

이슈

- **배경:** 미국 트럭 톤수 지수가 7월 전월 대비 1% 감소, 복합운송 성장세도 주춤한 모습(출처: DC Velocity).
- **분석:** 내수 화물 수요 둔화가 확인되는 가운데, 레누스는 Shipzero와 협력해 운송 배출 감축 복앤클레임 서비스 출시로 지속가능성 대응 강화(출처: DC Velocity). 위험물 물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접목 자동화가 진행 중이나 규제 데이터 정합성이 관건으로 지적(출처: DC Velocity).
- **시사점:** 내수 물동량 둔화에 대비한 유연한 운영 체계 구축 필요, 탄소중립 및 자동화 투자 확대 트렌드에 선제적 대응 요구.

주요 뉴스

물류

레누스, 운송 배출 감축 북앤클레임 서비스...Shipzero 협력

레누스 그룹은 운송 배출 감축을 위한 '북앤클레임(book and claim)'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화주가 실제 운송에 저탄소 연료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속가능연료(SAF) 구매를 통해 배출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레누스 그룹이 화주를 대상으로 운송 부문 탄소 배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북앤클레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물 운송 배출량 추적·감축 포털 제공업체 Shipzero와 협력한다.

이번 제휴로 레누스 고객은 글로벌 운송의 기후 영향을 낮추도록 설계된 북앤클레임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항공·해상·육상 운송에서 대체 연료와 배터리 전기 차량을 아우르는 방식이다. 레누스는 자사가 기초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운송 배출의 기후 영향을 줄이는 데 이 전략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북앤클레임은 특정 화물의 물리적 운송 사슬 밖에서 저배출 운송 솔루션을 지원하고, 검증된 회계 시스템을 통해 기후 편익을 배분하는 구조다. Shipzero는 감사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해 기업들이 수작업 공정과 데이터 처리 의존도를 낮추도록 돕는다.

이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회계 체계를 활용해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나 운송사, 화주가 재생 연료 비용을 지불했음을 증명한다. 해당 연료가 자사의 화물을 운송한 특정 트럭에 실제로 주입됐는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 DHL은 북앤클레임을 난제에 대한 기발한 해법으로 정의한 바 있다.

DHL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연료는 디젤과 등유 등 화석 연료의 대안으로 점차 보급되고 있지만, 개별 사용자가 주유소에서 바로 주입하기는 어렵다. 친환경 연료가 화석 연료와 혼합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차량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북앤클레임을 관리 연속성 모델로 활용해 지속 가능 연료의 환경 편익을 추적하고 문서화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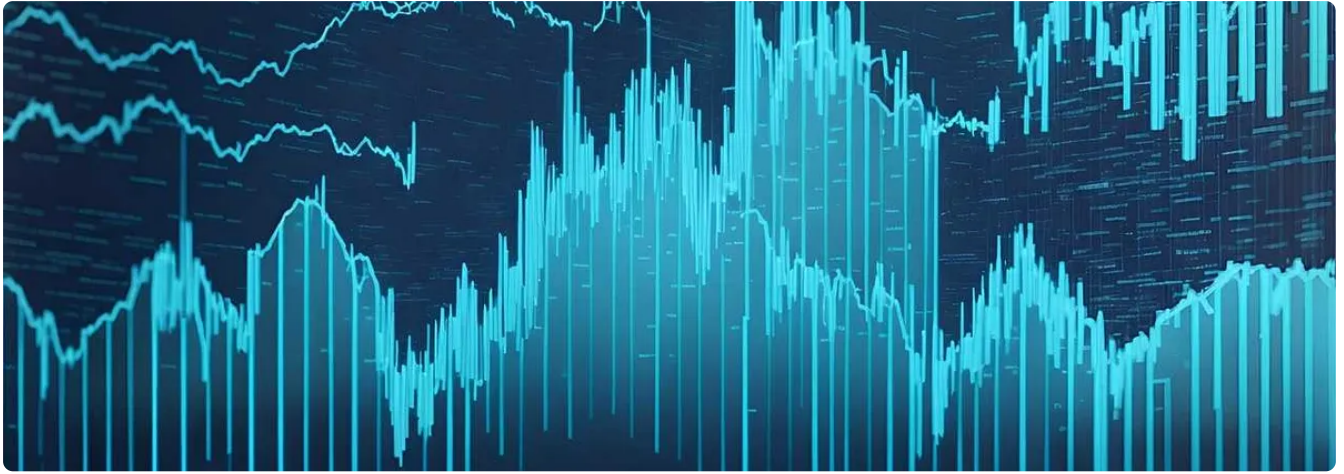
DHL은 북앤클레임이 하나의 대기권 접근법에 기반한 물리적 문제의 가상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온실가스는 같은 대기로 배출되므로 어떤 차량이나 선박, 항공기가 화석 연료 대신 지속 가능 연료를 사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디지털 기반 배출 감축 회계 방식이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 규제 대응 수단으로 확산할지 주목하고 있다.

출처: DC Velocity

미 트럭 톤수 7월 1% 감소...복합운송도 성장세 주춤

7월 비즈니스 활동 둔화, 그러나 전망은 견조



미국 물류 경제의 핵심 지표들이 7월 들어 일제히 둔화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며 경기 회복 기조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트럭협회(ATA)가 발표한 월간 트럭 톤수 지수에 따르면 7월 계절조정 지수는 113.5로, 6월의 114.7 대비 1% 하락했다. 이는 6월에 기록한 1.5% 상승세가 한 달 만에 꺾인 것이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0.5% 감소해, 6월의 수정치인 1.2% 증가보다 부진했다.

다만 올해 누계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월부터 4월까지 이어진 강한 전년 대비 성장세가 하반기 둔화를 상쇄한 결과다.

ATA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밥 코스텔로는 "톤수 수준이 최근 들쭉날쭉한 모습이며 이러한 추세가 7월 하락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AI용 데이터센터 건설 붐 등 일부 강세 영역을 제외하면 화물 수요는 부진했다"며 "업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거의 전적으로 초과 공급이 시장에서 빠져나간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미복합운송협회(IANA)가 발표한 8월 추정치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복합운송 물동량 지수는 101.3으로, 7월 추정치인 104.1보다 하락했다. 다만 기준선인 100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며 전년 대비 성장세는 이어갔다.

IANA의 앤드류 시볼드 경제 담당 이사는 "8월 추정치는 하락했지만 이는 올해 상당 기간 목격해 온 강세의 연장선으로 읽힌다"며 "이번 달 전망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있지만, 올해 나타난 긍정적 추세가 단기적으로 반전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제조업 지표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AMT(제조기술협회)에 따르면 미국 전체 산업생산은 7월에 0.2% 증가하는 데 그쳐 6월의 0.3%보다 성장 폭이 축소됐다. 소비재 생산 감소가 산업장비와 방산 생산 증가분에 일부 상쇄된 결과다. AMT의 크리스토퍼 치지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재 생산 위축은 점점 양극화되는 소비 경제의..."

출처: DC Velocity

위험물 물류 자동화에 인공지능 접목...규제 데이터가 관건

악스푸드와 위트론: 옴니채널 물류의 정점



위험물 운송 자동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인공지능(AI)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AI가 기존 위험물 자동화 소프트웨어(SaaS)를 대체할지, 아니면 SaaS 플랫폼의 가치를 높일지가 업계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AI와 SaaS의 결합이 위험물 운송 운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위험물 운송은 안전과 규제 준수가 핵심인 만큼, 정확한 규제 데이터와 검증된 워크플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AI가 신뢰할 수 있는 권고를 내놓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위험물 자동화 소프트웨어는 라벨링과 서류 작성의 사소한 오류로 인한 벌금 부과를 막고, 인적 오류를 줄여 납기 지연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위험물 사고 자체를 예방해 공급망 파트너와 대중으로부터의 신뢰가 훼손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데도 기여한다.

반면 순수 AI 도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용해 보이는 요약물 생성할 수 있지만, 해당 정보가 오래됐거나 불완전하거나 특정 화물에 필요한 핵심 맥락이 빠져 있을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규제 변화가 빠른 위험물 분야에서는 전문가 검증 없이 AI가 단독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는 여전히 부담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향후 위험물 운영 모델은 SaaS 플랫폼이 제공하는 일관성과 책임 구조에 고품질 위험물 데이터를 결합하고, 여기에 AI가 확장성과 생산성을 보강하는 형태로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AI가 규제 준수 전문성 자체를 대체하기보다 검증된 준수 워크플로를 더 빠르고 유연하게 만드는 방향이다.

시장에서는 자동화가 가장 큰 운영적 가치를 낼 수 있는 지점을 먼저 파악한 뒤 AI 전략을 수립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고 체계 고도화, 의사결정 지원, 워크플로 최적화 등 조직별 목표에 따라 맞춤형 해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출처: DC Velocity

5. 무역

결론: 미국의 대캐나다 관세 발효로 북미 교역 리스크 확대, 공급망 재편 압력 가중 (●).

이슈

- **배경:** 미국이 협상 중단 여파로 캐나다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발효, 동시에 파나마 운하 통항량 축소로 물류 병목 우려 확산(출처: Supply Chain Dive).
- **분석:** 고율 관세로 북미 공급망의 원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 다만 미국은 쇠고기 관세를 90일간 완화하며 소비자 가격 부담 일부 축소 조치 병행(출처: Supply Chain Dive). 파나마 운하 이슈는 해상 운임 상승과 맞물려 다중 리스크로 작용.
- **시사점:** 대캐나다 조달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대체 소싱 전략 검토 시급, 관세 완화 품목 확대 여부 지속 추적 필요.

주요 뉴스

무역

미국, 캐나다산 수입품 50% 관세 발효...협상 중단 여파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 다수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발효시켰으며, 협상은 교착 상태. 기존 USMCA 규정을 우회해 국가안보를 근거로 시행.



미국과 캐나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50% 관세를 피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실패했다. 캐나다산 수입품 2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고율 관세가 발효되면서 북미 양대 경제권의 통상 갈등이 한층 깊어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고 협상단을 오타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미국이 막판에 제안한 변경 사항이 불공정하고 비경제적이라며 협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관세는 원자재 농산물과 화학제품, 섬유, 소비재, 목재, 종이, 기계류 등 광범위한 품목에 적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캐나다의 새로운 요구와 기존 약속 후퇴가 협상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수입품에 대한 상당한 관세 인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이에 맞서 달러당 달러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 조치를 며칠 안에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캐나다는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양국은 지난달 미국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연장을 거부한 이후 연례 검토 절차에 돌입했지만, 이번 협상 결렬로 협정의 미래는 더 불투명해졌다.

Baker Tilly의 피트 멘토 글로벌 무역 자문 총괄은 링크트인에서 양국 경제의 통합도가 높아 장기적인 긴장 확대는 어느 쪽에도 매력적이지 않라며 궁극적인 합의 가능성을 점쳤다. 그러면서도 진짜 문제는 특정 관세의 존속 여부가 아니라 북미 무역 규범에 대한 신뢰 회복 여부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 발효가 미국-캐나다 간 공급망에 미칠 단기 충격과 함께 협상 재개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Supply Chain Dive

파나마 운하 일일 통과량 축소...엘니뇨 가뭄 여파

파나마 운하, 엘니뇨로 일일 선박 통과량 축소



파나마 운하가 엘니뇨로 인한 가뭄 우려 속에 일일 선박 통과 슬롯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파나마 운하청은 오는 9월 3일부터 네오파나막스 갑문의 일일 예약 슬롯을 기존 10개에서 9개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파나마스 갑문은 같은 날 26개에서 25개로 조정하고, 9월 15일부터는 23개로 추가 축소한다. 운하청 대변인은 평소 일일 통과량이 예약 슬롯보다 하루에 몇 척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하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파나마에 우기가 도래했고 절수 조치를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운하 유역의 강수량이 예상치를 밑도는 등 현재 수문 여건상 통과 운영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가톤 호수 수위 하락으로 흘수 제한 일정도 늦춰졌다. 당초 8월 26일 적용 예정이던 48피트 흘수 제한은 9월 2일로, 9월 3일 예정이던 47.5피트 제한은 10월 1일로 각각 연기됐다. 가톤 호수는 운하와 파나마 주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핵심 수원이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운하 유역 강수량은 역사적 평균 대비 34%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운하청은 2026~2027년 엘니뇨가 우기 잔여 기간의 강수량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리카우르테 바스케스 모랄레스 운하청장은 지난 7월 일일 예약 슬롯 축소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시기와 규모는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운하청은 기상 조건과 유역 유입량, 호수 수위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추가 운영 조정이 필요하면 적시에 고객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는 파나마 운하의 통과량 축소가 컨테이너선 운임에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MSC와 CMA CGM 등 주요 선사들은 운영 제약과 비용 증가를 이유로 파나마 운하 관련 할증료를 이미 도입하거나 갱신한 상태다.

출처: Supply Chain Dive

미국 쇠고기 관세 90일 완화...소비자 가격 부담 축소

미국, 물가 안정 위해 쇠고기 관세 일시 완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상 최고 수준을 맴도는 소비자 물가를 낮추기 위해 분쇄 쇠고기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90일 동안 최대 30만 메트릭톤의 분쇄 쇠고기를 할당량 외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유통되는 쇠고기 가격이 현 시장가 대비 25% 낮은 수준에서 판매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 참여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7월 미국 소 가공 속도는 월간 기록이 시작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됐다. 2023년 가뭄으로 소 공급이 급감한 이후 목장주들은 소 사육 규모 재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청 단백질 수요가 급증하면서 젖소 사육은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젖소 재고는 2.1% 증가한 데 비해 육우 공급은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국 생산이 위축되면서 미국은 사상 최대 규모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2분기 수입량은 16억 파운드로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호주가 증가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급 부족은 소비자와 가공업체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키웠다. 타이슨푸드는 최근 쇠고기 공장 2곳을 폐쇄해 2500명 이상이 해고됐으며, 가격 회복 시점을 빨라야 2027년으로 전망했다.

분쇄 쇠고기 소매 가격은 2024년 이후 25% 이상 급등해 7월 기준 파운드당 6.88달러를 기록했다. 모든 비조리 쇠고기 스테이크 가격도 파운드당 13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관세 완화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비자 물가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나왔다. 행정부는 가격 인하 계획의 일환으로 치명적 가축 기생충 확산 방지를 위해 1년 이상 유지해온 멕시코산 소 수입 금지 조치도 해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쇠고기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관세 완화 조치가 수입 물량...

출처: Supply Chain Dive